

조선시대 원효 인식

秦 星 圭*

1. 서 론
2. 원효와 관련된 사찰
3. 조선전기 원효 인식
4. 조선후기 원효 인식
5. 결 론

1. 서 론

元曉(617-686)는 한국 불교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가장 치열했던 삼국 항쟁의 시기를 거쳐 삼국통일이 성립된 이후는 삼국통일의 역사적 정당성의 논리를 제공하여 국가불교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교학불교의 체계를 확립한 후 불교 대중화에 혼신의 힘을 쏟아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였다. 불교의 대중화는 원효의 위대성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고 또한 역사상에 그를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길이기도 하다.

원효의 이런 정신은 고려시대에 와서도 大覺國師 義天이나 普照國師 知訥에 의해 재인식되었고, 高麗 肅宗은 원효에게 大聖和靜國師를 추증

* 진 성 규 : 중앙대 사학과 교수

이 논문은 1999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원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이 논문의 주제다. 조선시대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排佛政策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는 숨을 죽이고 潛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불교는 지하수처럼 끈질기게 생명력을 갖고 민간 속에 신앙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였다. 조선시대가 아무리 성리학을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화했다 하더라도 원효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국에 산재한 많은 사찰이 원효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문헌에도 원효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전국에 산재한 사찰과 문헌을 통해, 원효가 조선시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원효 연구에 관한 논문은 무려 658편¹⁾이나 되지만 필자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은 한편도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아마 자료의 희귀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필자도 자료의 한계를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많은 독자의 질정을 바란다.

2. 원효와 관련된 사찰

역사상 위대한 인물치고 生涯가 美辭麗句로 포장되지 않은 예를 찾기 어렵다. 원효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 위대성이 불교 신앙심과 맞물려 더욱 극적인 면으로 발전된 것 같다.

즉 『宋高僧傳』에 기록된 「曉擲板求衆」²⁾이란 설화는 단적인 예지만,

1) 中央僧伽大 佛教史學研究所, 『元曉研究論著目錄』, 1996을 참조.

2) 『宋高僧傳』卷4, 「新羅國皇龍寺元曉傳」: “初曉示跡無恒, 化人不定, 或擲盤而救衆, 或水而撲焚, 或數處現形, 或六方告滅, 亦盜渡誌公之偷歟.” 원효가 판자를 던져 대중을 구한 내용은, 「熙川郡妙香山擲盤臺事蹟記」(『朝鮮史刺史料』下, 1911, pp.162~163)에도 다음과 같이 보인다. “新羅人元曉悟道於斯 樂道於斯 一日慧眼觀之中原有大作佛事 九僧九俗者參證師 天罰地陷 緣此會衆咸沒之際 有一盤 自無

내용이 설화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는 자료는 『鶴陰散稿』³⁾로 그 내용은 이렇다. 원효가 동래군 장안면 불광산에 척판암(擲板庵)을 창건하여 머물던 중, 당나라 태화사에 1천 명 대중이 장마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될 것을 알고 ‘曉擲板求衆’(원효가 판자를 던져 대중을 구한다는 뜻)이라고 쓴 큰 판자를 그 곳으로 날려보냈다. 그 곳 대중들이 공중에 떠 있는 현판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 법당에서 뛰쳐나와 보는 순간 뒷산이 무너져 태화사는 매몰되고 1천명 대중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 인연으로 1천 명의 중국 승려가 신라로 와서 원효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類의 설화는 원효의 위대성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원효의 위대성은 전국에 많은 사찰이 세워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원효와의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효가 창건·개산·증창·강법을 했다는 등의 명목을 붙여 원효와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원효와의 인연을 부각시킴으로써 寺格을 높이는 방편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우선 원효와 관련된 사찰 현황을 도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何以來或高或低 揭道場而去 會衆咸言奇怪而隨出 後地陷 證師被陷沒之禍 盤止觀之 則盤中有海東元曉擲盤救衆人字 所以扁額也…光緒5年(1879: 필자)己卯 仲夏滯普運子禧謹記.”

- 3) 『鶴陰散稿』卷4, 「記新羅僧元曉事」: “元曉(俗姓薛云元曉在絕頂一) 庵中 望氣於江南知其某月某日江南寺僧當設齋於江南大村 村民千人 必有以僧之罪一時盡死 元曉自謂曰 江南雖在萬里 吾當救衆人之命 元曉某月誦呪經 錚盤化爲銀盤 又化爲月 飛送一輪月於江南 一輪月到江南 設齋村高 不過數十尺 人可仰見而不可執 江南村千人欲執未執 皆異之 一輪月即還去 千人隨之 意在執也 到三十里一輪月墮地 千人見之即一錚盤也 大書其盤曰 ‘朝鮮僧元曉書’ 千人見此 相顧而語曰 朝鮮有妖僧誑吾輩至此耶 千人憤甚 還到江南村 俄所見齋僧 不知其去 大村盡陷 爲一大浦 只有波濤而已 千人嘉歎曰 朝鮮道僧活我衆命也 江南之於朝鮮 雖曰萬里 吾輩恩人 吾輩何以不見乎 千人遂束裝登程到鶴林 訪求元曉 遍尋到日生山 有孤菴 知其有元曉大師 千人羅拜而致謝曰 吾等江南人也 元曉亦勞問遠來之意 千人曰 禪師在外國 望氣而何以知之乎 吾輩千人賴禪師全活吾輩 所以不遠萬里而來也”.

<표 1> 원효와 관련된 寺刹 現況4)

- 4) 이 표는 金煥泰 교수의 논문 「傳記와 說話를 통한 元曉研究」, 『佛教學報』17집(1980), pp.73~74를 바탕으로 새로 36개 사찰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추가된 사찰은 사찰명 앞에 *표시를 하였음. 「원효와 관련된 寺刹 現況」의 전거 자료는 일일이 붙이지 않고 일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三國遺事』
 『慶州高仙寺磬幢和尚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41.
 贊寧, 『宋高僧傳』.
 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上·下, 東國大學校出版部, 1979.
 趙明基 編, 『韓國佛教 史學大事典』上·下, 寶蓮閣, 1991.
 『奉先寺本末寺誌』, 奉先寺, 1977.
 『奉恩本末寺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楡岾寺本末寺誌』影印本, 亞細亞文化社, 1977.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乾鳳寺本末寺事蹟』影印本, 亞細亞文化社, 1977.
 『太古寺寺法』
 『梵字攷』
 『東師列傳』
 『朝鮮史料史料』上·下, 朝鮮總督府 內務部, 1922.
 『朝鮮金石總覽』上·下, 朝鮮總督府 1919.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影印本, 東國文化社, 1958.
 『東文選』影印本, 慶熙出版社, 1966~1967.
 『牧隱集』影印本(麗季名賢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59.
 『鶴陰散稿』
 한국불교연구원, 『신록사』한국의사찰16, 일지사, 1978.
 한국불교연구원, 『북한의 사찰』한국의사찰17, 일지사, 1978.
 『文化遺蹟總覽』상·중·하, 문화재관리국, 1977.
 『전북불교총람』, 전북불교총연합회, 1993.
 『황해도지』, 황해도, 1970.
 『한국의 명산 대찰』, 국제불교도연합회, 1982.
 이고운, 『명산 고찰 따라』, 보림사, 1982.
 김동화 외, 「호국대성 사명대사 연구」, 『불교학보』8, 1971.
 이고운·박설산, 『명산 고찰따라』, 신문출판사, 1987.
 김기빈, 『고흥 지명 유래』, 계경고흥군강서회, 1982.
 『봉화군지』, 봉화군, 1977.
 『내 고장 전통』, 경산군, 1982.
 『금성의 얼』, 금성시, 1982.

道別	寺刹名	所在地	參考	寺刹名	所在地	參考
京畿	元曉庵	서울 三角山	緣故	獅子庵	逍遙山	緣故
	自在庵	楊州 逍遙山	開山	念佛庵	冠岳山	創建
	三幕寺	安養 三聖山	創建	*津寬寺(神穴寺)	北漢山	創建
	興國寺	楊州 漢美山	創建	*妙寂寺	南楊州 妙寂山	創建
	*神勒寺	驪州 鳳尾山	創建	*三川寺	北漢山	創建
忠北	元曉庵	丹陽 赤城里		*蒼龍寺	忠州 金鳳山	創建
忠南	*銀石寺	天原 銀石山	創建	*太古寺	完州 大茺山	創建
全北	元曉庵	扶安 邊山	住	*古林寺(桑林寺)	鎮安 富貴山	創建
	雲岾寺	長水 聖迹山	講法			
全南	元曉寺(庵)	光州 無等山		元曉庵	天冠山	
	元曉庵	海南 頭輪山		*圓通庵(向日庵)	麗川 金鰲山	創建
	元曉庵	光州 瑞石山		*金塔寺	高興 天燈山	創建
	*無爲寺	康津 月出山	創建	*多寶寺	羅州 金城山	創建
	*尋香寺(神王寺)	羅州 錦城山	創建	*道林寺(神德寺)	谷城 樂山	創建
	元曉庵	長興 獅子山		*雲岾寺	長水 聖迹山	
慶北	元曉庵	浦項 雲梯山	緣故	*覺華寺	奉化 太白山	創建
	高仙寺	慶州	住	*居祖庵?	大邱 八公山	創建
	大乘寺	聞慶 四佛山	緣故	芬皇寺	慶州 九皇里	纂疏
	新林寺	慶山 賢聖山	創建	深源寺	聞慶 道藏山	開山
	娑羅寺	慶山 佛地村	出生地	初開寺	慶山 佛地村	本家
	華藏寺	聞慶 化庄里	居住	皇龍寺	慶州 九皇里	緣故
	元曉庵	大邱 八公山	創建	修道寺	大邱 八公山	開創
	麟角寺	軍威 華山	創建	*清涼寺	奉化 清涼山	創建
	金井庵	月城 四龍山	初創	法廣寺	迎日 飛鶴山	創建
	佛靈寺	清道 虎養山	創建	*臺山寺(龍鳳寺)	清道 月隱山	創建
	吾魚寺	浦項 雲梯山	緣故	圓寂寺	聞慶 清華山	開山
	穴寺	慶州?	入寂	*盤龍寺	慶山 九龍山	創建
	*磧川寺	清道 華岳山	創建	*大興寺(圓通庵)	慶山 鶴山	創建
	坐孤庵	日生山	駐錫			

慶南	元曉庵	咸安 眉山		元曉庵	統營 碧鉢山	創建
	迦葉庵	統營 碧鉢山	創建	隱鳳庵	統營 碧鉢山	初創
	金鳳庵	梁山 千聖山	創建	*花芳寺(煙竹寺)	南海 望雲山	創建
	大菴庵	梁山 千聖山	創建	*修道寺	宜寧 新德山	創建
	*安寂庵	梁山 圓寂山	創建	*安靜寺	統營 碧鉢山	創建
	元曉庵	梁山 千聖山	創建	*虹龍寺(落水寺)	梁山 千聖山	
	*藏義寺	固城 巨流山	創建	*內院庵	梁山 千聖山	創建
	彌陀庵	梁山 千聖山	修道	*龍門寺(普光寺)	南海 虎丘山	創建
	見庵寺	居昌 牛頭山	緣故	長安寺	梁山 佛光山	初創
	擲板庵	梁山 佛光山	創建	礪高寺	蔚州 靈鷲山	住
	*竹林寺(表忠寺)	密陽 載藥山	創建	西上庵	密陽 載藥山	創建
	*栗谷寺	山淸 智異山	創建	靈井寺(竹林寺)	密陽 載嶽山	創建
	修道寺	宜寧 新德山	創建	藏義庵	固城 巨流山	創建
	觀龍寺	昌寧 火旺山	緣故	元曉庵	巨濟 鷄龍山	
	*菩提庵(普光寺)	南海 錦山	開山	*見菴禪寺	巨濟 牛頭山	居住
	元曉庵	釜山 金井山				
黃海道	神光寺	碧城 北嵩山	緣故	元曉垵	碧城 北嵩山	結庵
	*館北寺(石鍾寺)	平山 聖跡山	創建			
平北	元曉庵	寧邊 藥山		擲板臺	熙川 妙香山	住
江原道	鳳頂庵	束草 雪嶽山	重建	靈穴寺	束草 雪嶽山	創建
	水隘寺(壽陀寺)	洪川 孔雀山	創建	長安寺	淮陽 金剛山	緣故
	須彌庵	淮陽 金剛山	初創	正陽寺	淮陽 金剛山	再創
	洛山寺	襄陽 五峯山	緣故	天糧庵	蔚珍 白蓮山	住
	*深源寺(深寂寺)	太白 太白山	創建	佛影寺	蔚珍 天竺山	緣故
咸南	開心寺	新興 千佛山	開山			

위의 <표 1>을 다시 도별로 통계를 내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도별 사찰통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10	2	2	3	12	31
경상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합계
27	10	3	2	1	103

위의 도별 사찰 통계표를 보면 원효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찰을 세우고 주석하고 설법을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원효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사찰을 세우려면 적어도 삼국이 통일되고 정치적으로도 전국이 안정되고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백제의 멸망이 원효의 나이 47세인 663년에 이루어지고, 고구려 멸망이 52세인 668년이다. 설사 원효의 나이 52세부터 전국적으로 사찰 건립이 시작된다 고 해도 몰년인 686년까지는 18년 세월이다. 교통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당시에 더구나 깊은 산 속에 18년 동안에 100여 개의 사찰을 어떻게 창건 내지는 주석 등을 할 수 있었을까? 교학불교 체계를 확립한 그가 그 많은 저서를 한 곳에 주석하면서 집필하는 데도 힘겨운 일일 터이다. 더구나 대중교화를 위해 고통받은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 이던 찾아갔던 그였다. 설사 옛 신라 지역의 사찰은 삼국통일 이전에 창건하고, 백제 고구려 지역의 사찰은 삼국통일 이후에 세웠다 하더라도 무려 35개 정도의 사찰을 세웠다는 계산이 된다. 즉 18년 기간을 계산한다면 일년에 평균 2개 정도의 사찰을 세운 셈이 된다. 요즈음처럼 교통수단과 건축술이 발달되고 재정이 준비되어도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이 아닌가? 아무리 암자 같은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숫자이다.

원효의 활동 무대는 아무래도 경주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경상도지역에 가장 많은 58개의 사찰이 원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0개 사찰과 관련을 맺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원효의 행적을 분명히 알려주는 사찰은 그리 많지 않다. 태어

난 자신의 慶山 집을 사찰로 삼았던 初開寺⁵⁾, 자신의 碑銘이 있었던 경주 高仙寺⁶⁾, 찬술활동을 했던 경주 芬皇寺⁷⁾, 찬술한 經疏類를 惠空 惠宿에게 질의했던 포항 吾魚寺⁸⁾, 『金剛三昧經論』을 강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주 皇龍寺⁹⁾, 젊은 시절 수학했던 경남 蔚州 靈鷲山 礪高寺¹⁰⁾, 晩年을 살다가 떠났던 곳으로 보이는 위치 미상의 穴寺¹¹⁾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의 <표 1>에서 보여준 그 많은 사찰들은 원효의 위대성에 寺格을 높이기 위해 원효와의 관련성을 假託한 것으로 이해하여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3. 조선전기 원효 인식(1392~1592)

조선사회가 주자학을 신봉하는 유학자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인 만큼 불교는 이단으로 간주되어 배척과 탄압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태종과 세종대를 거치면서 불교가 禪·敎 兩宗으로 통폐합되고 사원전과 노비가 환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그러나 뿌리 깊은 불교전통이 하루아침에 단절될 수는 없었다.

태조 이성계는 유교적 가풍을 견지하면서도 불교를 독실히 믿었고, 세종과 세조도 불교에 호의적이어서 많은 佛唄가 간행되기도 하였다. 성종도 불교가 治人의 도는 아니지만 불교혁파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¹²⁾ 消災祈禳·救病禱佛·水陸齋·飯僧 등 불교행사도 무수히 실행되

5) 『三國遺事』卷4, 「元曉不羈」條.

6) 「慶州高仙寺誓幢和尚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41.

7) 『三國遺事』卷4, 「元曉不羈」條.

8) 『三國遺事』卷4, 「二惠同塵」條.

9) 『宋高僧傳』卷4, 「新羅國皇龍寺元曉傳」.

10) 『三國遺事』卷5, 「朗智乘雲」條.

11) 「慶州高仙寺誓幢和尚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41.

12) 조선초기 대불교정책에 대한 연구는 韓祐勳, 『儒敎政治와 佛敎』(一潮閣, 1993)를

었다.

이러한 왕실의 불교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거봉인 원효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조선전기 대표적인 학자로 『東國通鑑』을 저술하고 『經國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편찬에 참여했던 徐居正은(1420~1488)은 『筆苑雜記』에서

신라의 글이 지금에 전한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원효와 설총이 지은 한 두 편이 있을 뿐이다.¹³⁾

라고 하여, 원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當代를 대표하는 학자의 이해가 이 정도라면 일반인들에게는 원효라는 승려의 존재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현재도 국내외에 원효의 저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조선초기는 원효의 저서가 오늘날보다 더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효의 저서가 거의 없다고 한 것은 서거정의 원효 이해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徐居正보다 15년 정도 뒤늦은 시기에 태어난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의 원효 이해는 換骨奪胎한 기분이다. 김시습은 雪岑이라는 法號가 의미하듯이 불교에 조예가 깊은 유학자인 것 같다. 김시습은 31세 때인 1465년 경주 金鰲山에 칩거하면서 경주일대 유적지를 돌아보고 많은 시를 남기게 되는데 이 시들이 『梅月堂集』에 남아있다. 그 가운데 無諍碑¹⁴⁾란 詩를 지었는데 그 내용을 보기로 하자.

참조.

13) 『筆苑雜記』卷一, “新羅之文 傳於今者絕無 只有元曉薛聰所著一二篇而已”.

14) 『梅月堂集』卷12, 「遊金鰲錄 無諍碑」. 무쟁비는 현재 전해지는 「慶州 芬皇寺 和諍國師 碑片」을 말하는 것 같다. 和諍國師란 명칭은 고려 숙종 6년(1101) 원효에게 내린 謚號로 『高麗史』에는 和靜國師로 되어 있으나 和諍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김시습이 無諍碑라고 한 것은 바로 이 和靜國師碑를 두고서 한 말이 아닐까? 고려 명종 20년(1190)에 세워진 이 비의 비문은 『大東金石帖』에 실려 있다. 이 비는 선조까지 전해지고 있었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卷21, 「慶州都護府 佛宇 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신라 異僧 元旭氏	: 君不見新羅異僧元旭氏
삭발하고 신라 저자에서 道 행하는 것을	: 剔髮行道新羅市
법 배우러 入唐하려다 고향으로 되돌아 와	: 入唐學法返桑梓
僧俗 혼동하여 여염집으로 돌아다녔네	: 混同緇白行閭里
거리의 아이와 아낙네들도 쉽게 얼굴 보며	: 街童巷婦得容易
누구집 누구 자식이라 손짓하네	: 指云誰家誰氏子
그러나 은밀히 큰 무상 행하면서	: 然而密行大無常
소타고 설법하며 종지를 풀이하네	: 騎牛演法解宗旨
여러 경의 疏抄가 책상에 가득하니	: 諸經疏抄盈巾箱
후인들이 바라보고 우러러 다투었네	: 後人見之爭仰企
국사로 추봉하니 무쟁이라 이름하고	: 追封國師名無諍
비석에 새긴 것 정말로 훌륭하다 칭찬했지	: 勤彼貞珉頗稱美
碣 위의 금가루 번쩍번쩍 빛나는데	: 碣上金屑光燐燐
法書와 좋은 말 역시 기뻐할만 하네	: 法書好辭亦可喜
우리 무리 역시 잘 변하는 도당이랴	: 我曹亦是善幻徒
환어에 대해서도 대략은 알았지	: 其於幻語商略矣
나는 옛 것이 좋아 등짐지고 잃지만	: 但我好古負手隨
서쪽에서 오는 보살 못보는 것 슬퍼라	: 吁嗟不見西來士

이 시가 원효의 불교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화한 느낌이다. 의상과 함께 唐나라 유학 길에(唯識學을 공부하기 위함) 올랐다가 다시 신라로 돌아와 불교 대중화를 위해 千村萬落을 돌아다니는 원효의 모습을 아이와 아낙네들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과,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金剛三昧經論』을 지었다는 사실과¹⁵⁾ 원효의 疏抄가 많다는 사실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서쪽에서 보살이 도래하기 어려운 상황을 아쉬워하고 있다.

皇寺』條에 의하면 平章事 韓文俊(?~1190)이 비문을 지었다고 한다. 『금석청완』에는 崔誥(?~1209)이 이 碑의 글씨를 썼고, 『崔惟清墓誌銘』(『高麗墓誌銘集成』, p.225)에는 최유청이 비문을 撰했다고 함.

15) 『宋高僧傳』卷4, 『新羅國皇龍寺元曉傳』.

다음으로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강직과 節義를 중요시했던 南孝溫(1454~1492)의 시를 보기로 하자. 그는 성종4년(1478) 雨土의 재난으로 群臣들의 직언을 구할 때 불교를 배척하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 시는 逍遙山 원효의 舊居를 찾아 쓴 것으로

옛날 신라시대	: 今昔新羅代
고승 원효가 살았지	: 高僧元曉居
靑山은 원래 속되지 않거니	: 靑山元不俗
비온 뒤 푸른 빛 다시 고와라	: 雨後靑更舒
아득한 천년 만년 세월	: 茫茫千萬古
한 마디 정도로 序를 대신하려네	: 代序一談餘
神通에는 生滅이 없거니	: 神通不生滅
법상은 응당 처음과 같거늘	: 法象應如初
罽僧 杯渡는 어느 곳으로 향했는가	: 杯渡向何處
목어 소리만 들리는 것 같구나	: 如聞響木魚 ¹⁶⁾

라 하였다. 이 시 속에서 秋江의 원효의 이해 정도는 알 수는 없다. 다만 神通은 生滅이 없다거나 法象 杯渡 등 용어의 用處를 보면 나름대로 불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다음 李堦(1469~1517)의 시를 읽어보자.

원효는 서쪽으로 최치원은 동쪽으로 치달리고	: 元曉橫西致遠東
독서하러 왔다가 북쪽에 버티니 의상과 같거니	: 讀來撐北義相同
숫발 같은 우거진 숲 속 골짜기 열렸는데	: 森然鼎處中開洞
푸른 벽 붉은 언덕 모두가 공인 것을	: 靑壁丹崖面面空 ¹⁷⁾

16) 『秋江集』卷2, 「逍遙山經元曉舊居削木題詩」.

17) 『松齋詩集』卷2, 「送曹·吳郎 與濫輩 讀書清涼山」 11首. 이 시는 11首 중 두 번째 수로 제목은 「三大峰」이다.

이 시는 李堦가 독서를 하기 위해 淸涼山을 방문했다가 쓴 11首 중 한 首로 三大峯을 주제로 한 것이다. 원효는 서쪽 당나라 유학 길에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경주로 되돌아왔고, 崔致遠은 당에서 입신한 후 귀국했고, 義相도 終南山 至相寺 智嚴門下에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귀국했다. 李堦 자신도 외국 유학 길은 아니지만 그윽한 청량산 골짜기의 분위기에 도취되어 유학 길에 나섰던 원효·최치원·의상 같은 同類感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청량산 三大峯의 푸른 벽 붉은 언덕도 모두가 空으로 이해한 점으로 봐, 李堦의 불교적 이해는 가름되나 원효의 이해는 짐작하기 어렵다.

이제 마지막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원효 관련 자료 ①②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신라의 승 원효가 일찍이 노래 부르기를,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허락할는지 내 하늘을 버틸 기둥을 다듬겠네”하였다. 太宗이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스님이 귀한 부인을 얻어서 어진 아들을 낳고 싶다는 말이다. 나라에 큰 어진 이가 있다면 이로움이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다”하였다. 그 때에 瑤石宮에 宗室 과부가 있었다. 임금이 요석 궁직이에게 명하여 元曉를 찾게 하였더니, 원효가 南山에서 와서 楡橋를 지나다가 궁직이를 만났다. 거짓 失足하여 물 속에 떨어지니 궁직이는 원효로 하여금 요석궁에 이르러 옷을 말리게 하고, 머물게 하였더니 과부가 과연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薛聰이다.¹⁸⁾

② 모두 雲梯山의 동쪽 恒沙洞에 있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신라 때 승려 원효가 惠空과 함께 물고기를 잡아서 먹다가 물 속에 뚱을 누웠더니 그 물고기가 문득 살아났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18) 『新增東國輿地勝覽』卷21, 「慶州府 古跡 瑤石宮」條: “新羅僧元曉嘗唱歌云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太宗王聞之曰 此師欲得貴婦產賢子之謂爾 國有大賢利莫大焉 時瑤石宮有宗室寡婦 王勅宮吏覓元曉 自南山來過楡橋 遇宮吏 佯墮水中 吏使元曉至宮 晒衣袴 因留宿 寡婦果有娠 生子卽薛聰”.

‘내고기’라고 말하고, 절을 짓고 인해서 그렇게 이름(吾魚寺) 지었다” 한다.¹⁹⁾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잘 알고 있듯이 중종25년(1530)에 편찬된 官撰史書다. 관찬사서는 어느 사료보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도 하에 편찬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위의 자료 ①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三國遺事』卷4, 「元曉不羈」條에 나오는 내용이고, ②의 자료도 『三國遺事』卷4, 「二惠同塵」條에 보이고 있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三國遺事』의 내용을 재인식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조선전기 원효 인식은 거의가 자료를 간단히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김시습만이 재해석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4. 조선후기 원효 인식(1592~1910)

성리학은 조선사회를 지배하는 철학으로 그 위치가 철옹성처럼 난공 불락이었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국가가 위기에 몰리고 국가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부르짖은 군상들의 허위의식이 여지없이 폭로되면서 심각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소위 실학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학운동도 그 뿌리는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기본인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西山大師(1520~1604)·四溟堂(1544~1610) 등 승병들의 구국적 활동으로 숨을 죽이고 있던 불교계가 잠시 숨을 들리고 있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원효에 대한 인식이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片鱗을 찾아보기로 하자

19) 『新增東國輿地勝覽』卷23, 「迎日縣 佛宇 吾魚寺」條: “俱在雲梯山東桓沙洞 世傳新羅釋元曉與惠空 捕魚而食 遺矢水中 魚輒活 指之曰 吾魚 構寺因名”.

우선 金然(1597~1638)를 보기로 하자. 그는 누구보다 많은 저서를 수집해 목록집인 『海東文獻總錄』을 편찬한 인물로 원효의 저서를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金然의 원효 이해는 『삼국유사』 「元曉不羈」條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 조금도 진전이 없다.²⁰⁾

이런 현상은 李晔光(1563~1628)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백과사전 류인 『芝峯類說』을 쓰면서도 『삼국유사』조차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니,

동방의 이상한 승려는 義相이라 하고 道詵이라 한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의상은 원효의 제자라 한다. 상고하건대 원효의 의상은 모두 신라 神武王 때의 중이다. 어떤 사람은 「의상은 곧 원효의 아우이다, 라고 한다.²¹⁾

하여, 세상에 전하는 원효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도 상식 밖의 이야기다. 같은 도반인 원효가 의상의 스승인지, 형인지는 『삼국유사』만 읽어보아도 시비를 가렸을 터이다. 의상이 원효보다 8년 年下이므로 제자라든가 아우라는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수광 정도라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을 아쉬움이 남는다.

閔周冕(1629~1670)은 『東京雜記』의 저자로 많은 자료를 섭렵한 인물이다. 이 『東京雜記』는 고려 때의 東京이었던 慶州의 내력을 적은 책이다. 원래 作者·年代 미상으로 전해 내려오던 『東京誌』를 1669년 慶州

20) 金然의 원효 이해는 『三國遺事』, 「元曉不羈」條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海東文獻總錄』, 「釋迦 華嚴疏 三昧經疏」: “釋元曉所撰 元曉俗姓薛 小名誓堂 母夢流星入懷而生 生而穎異 學不從士 一日唱於街曰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太宗聞之曰 此師殆欲得貴婦產賢子 遂引入瑤石宮 與寡公主留宿 有娠生男 是爲薛聰 曉既失戒俗服 自號小性居士 旣入寂 聰塑眞容 安芬皇寺 以表敬慕之志”.

21) 『芝峰類說』卷18, 「外道部, 禪門」: “東方異僧曰義相 曰道詵 世傳義相爲元曉弟子 按元曉義相皆新羅神王時僧 或言義相乃元曉弟也”. 의상이 원효의 아우라는 자료는 「洪州縣東孔雀山水窟寺(壽陀寺)事蹟」, 「乾鳳寺本末寺史蹟」 및 『寺刹全書』下, p.598·731과 「三聖山三幕寺事蹟」, 『奉恩本末寺誌』 등에도 보인다.

府使 閔周晷이 進士 李塚 등과 증수 간행하여 『東京雜記』라고 이름 붙여 3권 3책으로 만들었다. 閔周晷은 누구보다 경주 사정에 밝기 때문에 원효에 대한 이해가 깊을 것이라 기대되는 인물이다. 『東京雜記』에는 현재 원효와 관련된 자료는 두 군데 보인다.

첫째 자료 「夢星入懷」²²⁾는 『삼국유사』 「元曉不羈」條 내용을 조금 개작한 것이고, 둘째 자료 「葫蘆歌舞」²³⁾는 『破閑集』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다만 자료 수집에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

星湖 李瀾(1681~1763)은 『星湖僿說』의 저자로 실학의 대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듯, 『樂學軌範』과 『東京雜記』 등에서 원효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는 있지만,²⁴⁾ 원효에 대한 이해는 찾아 볼 수

- 22) 『東京雜記』卷三, 「異聞 夢星入懷」: “元曉俗姓薛 母夢流星入懷 因而有娠 及將產有五色雲覆地 生而穎異 學不從師 其遊方始末弘道茂跡 具載唐傳與行狀 師一日風顛唱街 太宗聞之 引師於瑤石宮 因有娠 生薛聰 曉既失生成聰已後 易俗服 自號小性居士 偶得優人舞弄大瓠 其狀瑰奇因其形製爲道具 以華嚴經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名曰無碍 仍作歌 流于世 千村萬落 且歌且舞 曾住芬皇寺 撰三昧經 置筆硯於牛之兩角上 因謂之角乘 既入寂 聰碎遺骸 塑眞容 安芬皇寺 以表敬慕終天之志 聰時旁禮 像忽顧 至今猶顧矣 讚曰 角乘初開三昧 舞壺終掛萬街風 月明瑤石春眠去 門掩芬皇顧影空 出三國遺事”.
- 23) 『東京雜記』卷三, 「異聞 葫蘆歌舞」: “昔元曉大聖 混迹屠沽中 嘗撫玩曲項葫蘆 歌舞於市 名之曰 無碍 是後好事者 綴金鈴於上 垂彩帛於下 以爲飾 拊擊進退 皆中音節 酒摘取經論偈頌 號曰無碍歌 至於田翁亦效之以爲戲 無碍智國嘗題云 此物久將無用用 昔人還以不名名 近有山人貫休作偈云 揮雙袖所以斷二障 三學足所以越三界 皆以眞理比之 僕亦見其舞 作讚 腹若秋蟬 頸如夏鼈 其曲可以從人 其虛可以容物 不見窒於密石 勿見笑於葵壺 韓湘以之藏世界 莊叟以之泛江湖 孰爲之名小性居士 孰爲之讚隴西駝李 出破閑集”.
- 24) 『星湖僿說』, 「人事門 鄉樂」. 『樂學軌範』에는 俗樂 중에 無碍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고려사를 상고하면, “무애라는 戲曲은 서역에서 들어왔는데, 그 말이 불어가 많이 인용되었으므로 절주만 그대로 두었다”했다. 字彙에, “尋는 礙와 같다”했으니, 無碍는 장애가 없다는 뜻이다. 신라의 중, 원효가 瑤石宮이 불탄 후에 俗服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小性居士라고 號하였는데, 우연히 광대가 가지고 춤추며 회롱하던 큰 표주박을 얻은 바, 그 모양이 매우 기괴하였다. 그 모양을 모방하여 춤추는 도구를 만든 다음 華嚴經의 “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구절을 따서 無碍라 이름하고 노래까지 지어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되었다. 그는 또 일찍이 芬皇寺에 머물러 三昧經을 저술할 때 붓과 벼루를 소의 두 뿔 위에 안치

없다.

安鼎福(1712~1791)은 星湖의 정신을 계승한 실학자로 우리 역사를 실증적으로 정리하여 정신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東史綱目』을 저술하였다. 이 저서에서 원효를 세 번이나 인용하고 있다.

첫째 인용 자료는 蘇定方이 신라에 원군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송아지와 난새를 그려 신라에 보냈으나 그 뜻을 아무도 몰랐으나 원효가 알았다는 것과²⁵⁾, 둘째 인용 자료는 원효가 奈麻 談捺의 아들로 瑤石夫人에게 장가들어 聰을 낳았다는 것이고²⁶⁾, 셋째 인용 자료는 원효에게 和諍國師 시호를 내린 이야기다.²⁷⁾ 새로운 것은 없으나 첫 번째 인용자료는 다른 문헌에서 보기 드문 경우다.

李圭景(1788~?)은 백과사전류인 『五洲衍文長箋散稿』을 남긴 실학자로, 비판력을 갖춘 인물인 것 같다. 李晔光은 『芝峯類說』에서 의상이 원효의 아우라는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기만 했지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규경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논증하였다.²⁸⁾ 뿐만 아니라 『金剛三昧經』의 제목을 襄休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注」

하고 角乘이라 이름하고는, “角乘初開三昧軸 舞壺終掛萬街風 明月瑤石春眠去 門掩芬皇顧影空(각승은 처음으로 삼매경에 열렸고 무호는 마침내 일만 거리 바람에 걸렸구나 요석궁에 달 밝으니 봄 졸음은 깊었는데 분황사에 문 닫혔으니 그림자도 비었어라)”이라는 詩讚을 지었다. 또 『東京雜記』를 상고하면, “원효가 일찍이 목이 굵은 葫蘆瓶을 어루만지면서 저자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후세에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병 위에는 금방울을 달고 아래에는 채색비단을 드리워 놓았다’ 했으니, 이른바 배[腹]는 가을철 매미와 같고 목은 여름철 자라와 같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25) 『東史綱目』第四上, 「壬戌年 文武王 2年2月」條: “定方 以食盡兵疲 又遇大雪 求還不得 至是得糧便還 前後之行 皆無大功而退 定方之還也 畫幘鬘二物送新羅 人無解者 僧元曉曰 是必速還 謂畫幘鬘二切也 已而果然”.

26) 『東史綱目』第四下, 「壬辰年 孝昭王 元年春」條: “聰字聰智 父元曉 奈麻談捺之子 嘗爲沙門 既已反本 自號小性居士 娶瑤石宮寡夫人生聰”.

27) 『東史綱目』第七下, 「辛巳年 肅宗 6年秋八月」條: “贈新羅僧元曉義相大聖號 詔曰 元曉義相 東方聖人也 無碑記謚號 厥德不暴 朕甚悼之 其贈元曉大聖和諍國師 義相大聖圓教國師 有司立石記德 以垂無窮”.

28)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六, 「論史類」二, 「人物」, 「元曉義相辨證說」條.

를 인용하여 “三昧는 바로 正思이다”라는²⁹⁾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점에서 보면 실학자로서 원효 이해에 접근하려는 자세가 엿보인다.

조선 純宗2년(1908) 국가에서 편찬한 『增補文獻備考』에 수록된 원효 관련 자료를 보기로 하자. 『增補文獻備考』는 우리 나라 文物 制度를 총망라한 백과사전류 책으로 3차의 보수를 거쳐 이루어진 250권의 방대한 자료집이다. 이곳에 인용된 원효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③ 瑤石宮太宗王時 此宮 有宗室寡婦 王勅僧元曉留宿 生子薛聰³⁰⁾
- ④ 慶州薛氏始祖薛聰 新羅 神文王時爲翰林 高麗贈弘儒侯從祀文廟 ○ 習比尼師今支德之 後小姓居士元曉子³¹⁾
- ⑤ 元曉混迹屠沽中 嘗撫玩曲胡蘆歌 舞於市 名曰無導 後好事者 綴金鈴垂綵帛 爲飾拊擊進 退皆中音節 號曰無導歌 樂志云 出自西域 其歌詞 多用佛語 且雜以方言³²⁾
- ⑥ 釋家類 金剛經三時(昧)論³³⁾

위의 자료 ③은 원효가 무열왕 때 宮에서 종실과부와 관계를 가져 설총을 낳은 내용이고, ④는 설총이 소성거사 원효의 아들이라는 내용이고, ⑤는 원효가 저자에 살면서 무애가를 부른 것과 그 가사가 불교 용어가 많고 방언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⑥은 원효의 저서에 금강삼매경론이 있다는 것이다. 『增補文獻備考』가 갖는 책의 성격으로 봐 원효의 저서만은 충실히 기록할 수 있으리라 짐작이 되나 그것마저 무망이다. 『金剛三昧經論』마저 『金剛經三時論』³⁴⁾으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

29)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六, 「論史類」二, 「人物」, 「曉義相辨證說」條: “喪休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注 引海東元曉法師造論 釋金剛三昧經題目中云 三昧此云正思云云 術數書 有元曉問答”.

30) 『增補文獻備考』卷37, 「輿地考」25, 「宮室」1, 「歷代宮室: 新羅」.

31) 『增補文獻備考』卷52, 「帝系考」13, 「慶州薛氏」.

32) 『增補文獻備考』卷106, 「樂考」17, 「俗部樂」1.

33) 『增補文獻備考』卷246, 「藝文考」, 「釋迦類」.

34) 『增補文獻備考』卷246, 「藝文考」, 「釋迦類」에 『金剛經三時論』은 “『東文選』에는 「三昧論」이라 하였다”라는 설명은 붙어 있다.

다.

마지막으로 沈遠悅(?~?)의 원효 이해를 보기로 하자. 沈遠悅은 생물이 불분명하나 조선후기 인물로 원효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관련 사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원효대사는 신라 도승이다. 일찍이 日生山 坐孤庵에 살면서 매일 경을 읽고 山門 밖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하루는 鷄林城에 이르러 요석궁을 지나갔는데 신라공주가 살고 있던 곳이었다. 공주는 과부로 살면서 절개를 지키리라 스스로 맹세하였다. 원효가 이 궁을 지나면서 노래 한 곡조를 부르기를 “누가 없어진 도끼자루를 보관하리, 내가 하늘을 지탱할 기둥이다”라고 하였다. 그 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었다. 공주가 이 소리를 듣고 시녀를 불러 “이 무슨 소리인가?”하자, 시녀가 말하기를 “이 소리는 지나가는 승려가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하였다. 공주가 시녀를 시켜 원효를 招致하고 珠簾을 드리우고 묻기를 “얼마 전에 부른 노래는 당신이 과연 부른 것인가?”하니, 원효가 말하기를 “없어진 도끼자루는 공주고, 하늘을 지탱할 기둥은 소승입니다”하였다. 공주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밤에 원효와 잠을 같이 잤는데 그 달에 아기를 배어 설총을 낳았다.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다.³⁵⁾

위의 내용은 『삼국유사』 「元曉不羈」條 기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태종만이 원효가 부른 노래의 의미를 알고 원효를 요석궁으로 안내해 요석공주와 동침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자료는 요석공주가 직접 시녀를 보내 원효를 맞이해 “없어진 도끼자루는 공주고,

35) 『鶴陰散稿』卷4, 「記新羅僧元曉事」: “元曉大師者 新羅道僧也 嘗居於日生山坐孤庵日誦經 未嘗出一步於山門之外 一日到鷄林城 過瑤石宮 新羅公主所居也 公主寡居以節自矢也 元曉過此宮 唱歌一曲曰 誰藏沒柯斧 我有撐天柱 其聲漸高 人皆可聞 公主聞此聲 招侍女曰 是何聲也 侍女曰 此是過僧唱歌也 公主使侍女 招致元曉 垂珠簾見之 問曰 俄所唱聲 爾果唱之乎 元曉曰 沒柯 擬公主也 撐天柱指小僧也 公主知其意 夜與元曉薦枕 自此月有娠 生薛聰 薛聰 元曉之子也”.

하늘을 지탱할 기둥은 소승이다(원효)”라는 원효의 말을 듣고 요석공주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되어있다. 불을 지핀 것이 원효라면 얼씨구나 하면서 화답을 한 것은 요석공주인 셈이다. 원효와 요석공주의 동참은 두 사람의 자발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더구나 원효가 불도를 닦아 중생을 제도하면서 千乘의 왕녀인 요석공주를 不經의 노래로 겁탈했다면 고승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인연으로 알고 당연히 名人을 낳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관계를 가졌다면 대자대비의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³⁶⁾ 지금까지 보기 어려운 적극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더 나아가 원효가 던진 하나의 鍾盤이 하나의 輪月이 되어 천 여명의 목숨을 구한 내용과, 은혜를 입은 천 여명이 모여들자 이들에게 식량을 주선한 일과 천불 탑을 쌓은 일에 대해서도 원효의 神術로 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³⁷⁾

- 36) 『鶴陰散稿』卷4, 「記新羅僧元曉事」: “轉法輪而度濟衆生也 元曉足以愛佛之學 而修佛之道也 內修之道術 如此而外現之 悖習如是 孰謂元曉曰大師也 村閭守貞之孀婦 尙不能犯之 況堂堂千乘之王女乎 過誦不經之歌曲 強劫深居之貴主 是豈高僧之操行乎 然而元曉知其不可 不會之芳緣 占其不可不生之名人 爲此不可爲之事 而此亦大慈大悲之佛法也歟”.
- 37) 『鶴陰散稿』卷4, 「記新羅僧元曉事」: “元曉(俗姓薛云元曉在絶頂一) 庵中 望氣於江南 知其某月某日江南寺僧當設齋於江南大村 村民千人 必有以僧之罪一時盡死 元曉自謂曰 江南雖在萬里 吾當救衆人之命 元曉某月誦呪經 鍾盤化爲銀盤 又化爲月 飛送一輪月於江南 一輪月到江南 設齋村高 不過數十尺 人可仰見而不可執 江南村千人欲執未執 皆異之 一輪月卽還去 千人隨之 意在執也 到三十里一輪月墮地 千人見之卽一鍾盤也 大書其盤曰“朝鮮僧元曉書” 千人見此 相顧而語曰 朝鮮有妖僧誑吾輩至此耶 千人憤甚 還到江南村 俄所見齋僧 不知其去 大村盡陷 爲一大浦 只有波濤而已 千人嘉歎曰 朝鮮道僧活我衆命也 江南之於朝鮮 雖卽萬里 吾輩恩人 吾輩何以不見乎 千人遂束裝登程到鷄林 訪求元曉 遍尋到日生山 有孤菴 知其有元曉大師 千人羅拜而致謝曰 吾等江南人也 元曉亦勞問遠來之意 千人曰 禪師在外國 望氣而何以知之乎 吾輩千人賴禪師全活吾輩 所以不遠萬里而來也 元曉曰子等何必如是耶 吾不安心矣 千人不可不食 元曉聞之 遂見山下 富人全舊美托千人之饋 舊美從之 千人留一年居在日生山 山在高峰上 仍開野延袤 可十里 一人築塔 報元曉恩 始爲一塔 終爲千塔 人皆稱千人塔 其高不滿數十尺 其功可動百萬人 今其塔在焉云…以其一盤之書 化爲一輪之月 使千人皆爭覩而遠避 能免一時之盡殞其軀 此豈非元曉之神術歟”.

조선후기 원효 인식도 실학운동과 더불어 백과사전류 책에 주로 원효 관련 자료가 보이지만, 단순한 자료정리에 불과하고 원효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오직 沈遠悅 뿐이었다.

5. 결 론

지금까지 원효와 관련된 사찰과 조선 전·후기 자료를 통해 원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원효가 활동을 한 중심 무대는 당시의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의 사찰이다. 그 중심 사찰을 살펴보면, 初開寺·高仙寺·芬皇寺·呑魚寺·皇龍寺·礪高寺·穴寺 등이다. 특히 많은 저술활동으로 여념이 없던 그가 전국의 산천을 누비면서 100여 개 가까운 사찰을 세우고 설법하는 등의 불사는 당시의 경제적 여건 정치적 불안 불편한 교통 등 제반 사정을 생각하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효와 관련된 사찰이 전국에 산재한다는 것은 원효의 명성에 假託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전기 원효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을까?

조선전기 대표적인 학자인 徐居正은 『筆苑雜記』에서 신라의 문장이 전해진 것은 거의 없고 원효의 저서가 한 두 편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徐居正보다 15년 정도 뒤늦은 시기에 태어난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의 원효 이해는 換骨奪胎한 기분이다. 김시습은 경주 金鰲山에 칩거하면서 경주일대 유적지를 돌아보고 많은 시를 남기게 되는데 이 시들이 『梅月堂集』에 남아있다. 그 가운데 無諍碑란 시를 남기고 있다. 이 시를 통해 의상과 함께 唐나라 유학 길에 올랐다가 다시 신라로 돌아와 불교 대중화를 위해 千村萬落을 돌아다니는 원효의 모습을 아이와 아낙네들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과,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金剛三

味經論』을 지었다는 사실과 원효의 疏鈔가 많다는 사실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강직과 節義를 중요시했던 南孝溫(1454~1492)는 逍遙山 원효의 舊居를 찾아 시를 쓴 것에 불과하고, 李堉(1469~1517)도 淸涼山을 방문해 쓴 시속에서 元曉와 同類感을 느끼고 있는 정도다.

관찬사서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원효가 요석공주와 동침해서 설총을 낳은 이야기와 吾魚寺에서 惠宿과 교류한 내용을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전제하고 있을 정도다. 조선전기 원효 인식은 조선사회가 갖는 한계성 때문인지 더 이상 원효에 대한 이해가 없다..

조선 후기 원효 이해는 전기에 비해 별로 진전된 것은 없으나 임란 후 실학운동과 더불어 백과사전류의 저서가 등장되면서 원효가 주류 이 자료에 등장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金然는 『海東文獻總錄』에서 『삼국유사』 「元曉不羈」條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고, 李晬光은 『芝峯類說』에서 “원효의 제자가 의상”이라는 세상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 『삼국유사』조차 읽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될 정도다. 閔周冕의 『東京雜記』에 「夢星入懷」와 「葫蘆歌舞」를 남기고 있는데 모두 『삼국유사』 「元曉不羈」條와 『破閑集』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아 자료 수집에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

李瀾도 『星湖僊說』에 『樂學軌範』과 『東京雜記』에서 원효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는 있지만 원효에 대한 이해는 찾아 볼 수 없다. 安鼎福은 『東史綱目』에 원효를 세 번이나 인용하고 있다. 첫째 인용 자료는 蘇定方이 신라에 원군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송아지와 난새를 그려 신라에 보냈으나 그 뜻을 아무도 몰랐으나 원효가 알았다는 것과, 둘째 인용 자료는 원효가 奈麻 談捺의 아들로 瑤石夫人에게 장가들어 聰을 낳았다는 것이고, 세째 인용 자료는 원효에게 和諍國師 시호를 내린 이야기다. 새로울 것은 없으나 첫 번째 인용자료는 다른 문헌

에서 찾아보기 드문 경우다. 李圭景은 백과사전류인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의상이 원효의 아우라는 기록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논증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金剛三昧經』의 제목을 裴休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注」를 인용하여 “三昧는 바로 正思이다”라는³⁸⁾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점에서 보면 실학자로서 원효 이해에 접근하려는 자세가 엿보인다.

조선 純宗2년(1908) 국가에서 편찬한 『增補文獻備考』에는 원효 관련 자료가 4건이지만, 원효가 부른 무애가에 불교용어가 많고 방언이 혼합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沈遠悅의 원효 이해가 조선시대 가장 압권이라면 압권이다. 沈遠悅은 생물이 미상이나 조선 후기 인물이다. 沈遠悅은 요석공주와 원효의 동침을 두 사람의 자의적 욕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원효가 불도를 닦아 중생을 제도하면서 千乘의 왕녀인 요석공주를 不經의 노래로 겁탈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아름다운 인연으로 알고 당연히 名人을 낳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관계를 가졌다면 대자대비의 불법이라고 설과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보기 어려운 새로운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더 나아가 원효가 던진 하나의 錚盤이 하나의 輪月이 되어 천 여명의 목숨을 구한 내용과, 은혜를 입은 천 여명이 모여들자 이들에게 식량을 주선한 일과 천불 탐을 쌓은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또한 원효의 神術로 보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효의 불교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가 갖는 성리학의 한계 때문에 원효 이해가 제대로 안되고, 다만 원효의 명성에 걸맞게 그 이름만이 많은 사찰에 분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8)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六, 「論史類」二, 「人物」, 「曉義相辨證說」條: “裴休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注 引海東元曉法師造論 釋金剛三昧經題目中云 三昧此云正思云云 術數書 有元曉問答”.